

20대 대표언론

고함

20

대 선 특 별 판



투 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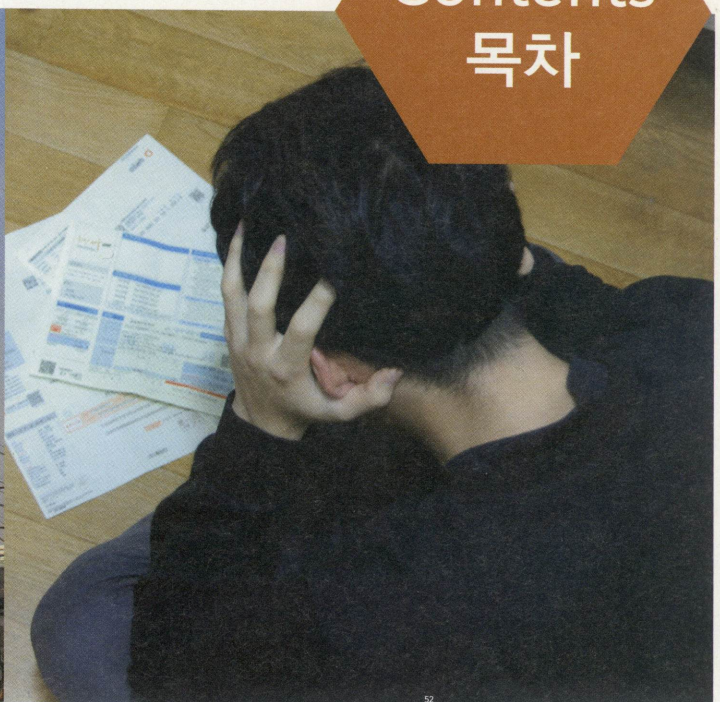
COVERSTORY

투표, 왜해요?

대선주자 청년정책 총정리
20대 한 달 생활비 밀착취재
문과입니다, 문 열어주세요

그럼이십대를만나: 20대 100명 릴레이 인터뷰

Contents 목차



“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 위주로 만들어진 청년 정책은, 고졸·전문대 출신 20대들에게는 전혀 공감을 못 얻고 있었다. 그들에게 정치란, 삶에서 먼 이야기였다.”

“대학생 월 평균 용돈이 44만 8천원이라고 한다.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그들은 가난하다. 한 끼에 3000원 하는 학생식당은 밥값을 아끼려고 하는 학생들 덕분에 소문난 맛집처럼 문전성시를 이룬다.”

커버스토리

- 14 정치, 기대와 냉소의 갈림길에서
- 16 고졸·전문대 출신 20대, “우리를 위한 공약이 없다”
- 19 20대의 정치 회의,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

정책

- 26 대선주자 청년정책 총정리
- 32 경제민주화?!
- 34 문헌 공약도 다시 보자

18대 대선

- 8 응답하라 2002·2007: 고학번 정치대담
- 12 2012 대선을 읽는 3가지 키워드
- 66 달려라 20대: 대선, 청년조직이 뜬다
- 68 안철수, 그 후...
- 74 대선후보의 20대는 어땠을까
- 88 18대 대선, 진보후보는 실종됐다

20대 이야기

- 42 대구는 속빈 강정?
- 44 대학서열화 해결하려면?
- 46 전문대라고 진로고민 없나요?
- 48 문과입니다, 문 열어 주세요
- 50 사라지는 공간, 20대는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
- 52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 - 20대 한 달 생활비 밀착취재
- 56 군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

키득키득

- 31 문재인의 별별★명
- 35 농담반 진담반: 기발한 정책제안
- 70 20대 청춘 메이커, PLAY START!
- 73 박근혜의 별별★명
- 78 웰빙 진생쿠키 레시피
- 86 영화 <킹메이커>로 본 2012 대선
- 97 이름점, 장난입니다